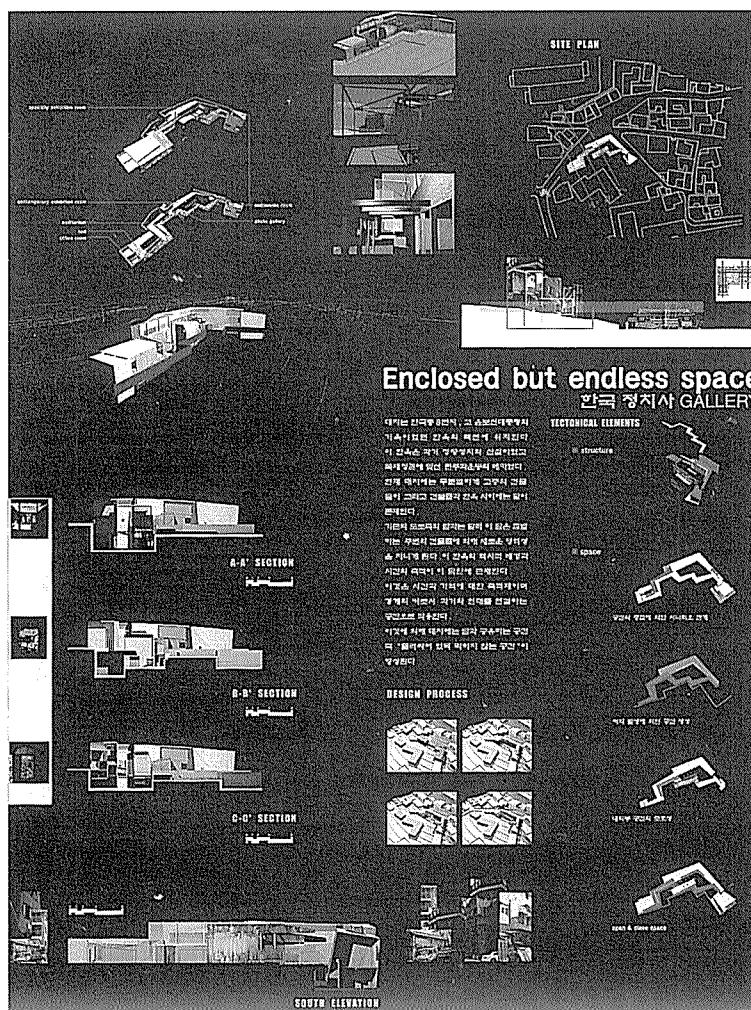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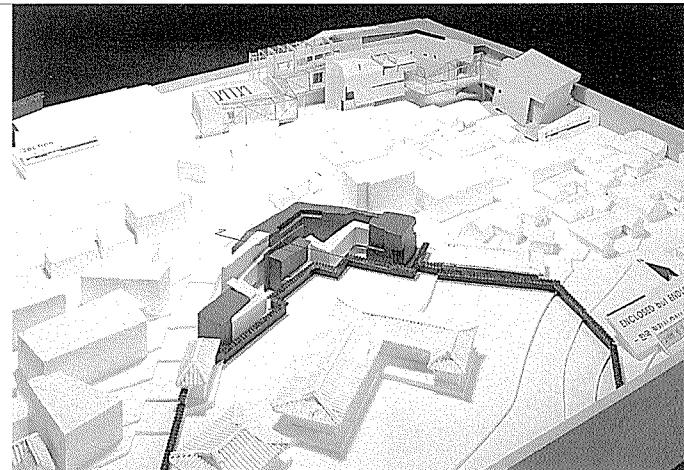


## 한국정치사갤러리

김관준 · 윤종호, 하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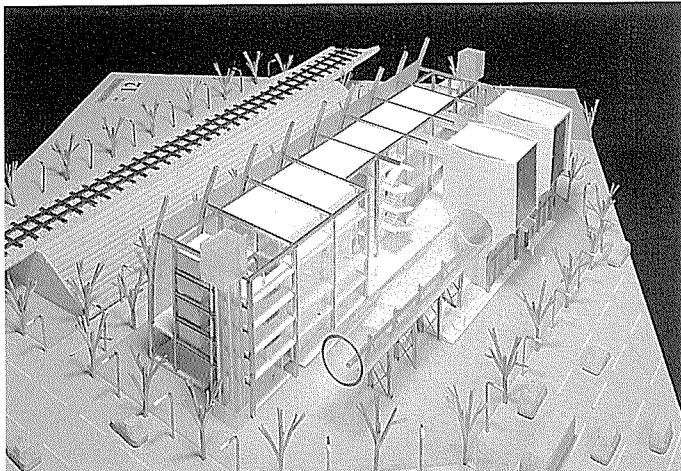
인하대 건축공학과 대학원, 인하대 건축공학과 4년



**대지분석 :** 대지는 안국동 8번지 고 윤보선 대통령의 가옥이었던 아흔아홉칸 한옥의 북편에 붙어있다. 이 한옥은 조선시대부터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있었고 윤보선 대통령때에는 정당정치의 산실이었으며,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메카의 역할을 해왔다. 현재 이 한옥의 북편에는 무분별하게 고층의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한옥의 보존가치를 무시한채 건축되고 있는 이 건물들과 한옥사이에는 담이 존재한다. 기존의 도로측의 보행자 중심의 담과는 달리 이 담은 주변 건물들의 침식에 의해 새로운 영역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 한옥의 역사와 시간의 축적이 이 담안에 존재한다. 이것은 시간과 기억에 대한 하나의 커로서 작용하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대지에는 담과 공유하는 공간 즉 “Enclosed but Endless Space(둘러싸여 있되 막히지 않는 공간)”이 형성된다.

**프로그램 개요 :** 전체적으로 현대 정치사에 대한 상설전시 및 특별 기획전시를 위한 공간과 담을 따라 이동하며 각 실에 접근할 수 있는 Photo Gallery 그리고 영상전시실과 서점, 부대시설로 구성된다. 동선은 담을 따른 유리 구조체에 의해 시작되며, 시작과 끝이 입구가 된다.

# Printing and Publishing Center in Mapo



김지훈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4년

**상황 :** 대규모 사무소 건물의 대량 신축과 이에 따른 상업 시설의 대규모 생성으로 인해 종로에 위치하고 있던 인쇄소들이 경쟁력을 상실하여 마포로 대부분 이동하였다. 이것은 출판사들까지 마포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마포구 공덕동은 남으로는 마포대교로 여의도로 통하고 북으로는 종로가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유리하여 대형 고층사무소 건물들이 들어서는 좋은 조건이 되어있어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는 중이며, 이미 공덕 로터리 부근은 마포의 옛모습은 사라지고 강남의 테헤란 벨리와 같은 풍경이 연출되어 버렸다. 종로와 같은 단계를 밟음으로 이들은 다시 어디론 가로 쫓겨나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상업문화에 잠식되는 지식산업(책과 관련된 문화)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 하다.

**Engine :** 책과 관련된 시설인데 왜 엔진인가? 인쇄와 출판은 지식 산업으로써도 구식 매체이면서도 사람에게 중요성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지식산업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 쫓겨 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지식산업은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심장부이며, 기계의 엔진과 같은 것이며, 이것을 전시시설에서 보여주려 한다. 이것은 단순히 외형 뿐 아니라 공간체험에서도 느끼도록 계획함을 목표로 한다.

